

大學의 자유와 學問의 가치중립성

丁 堯 燮

(淑明女大 名譽教授, 政治學)

대학은 삶의 쉼터요 소우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은 다양성·다원성·복합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어느 특정 정치이념이나 고정된 사고의 틀 속에서는 대학이 본래의 사명인 삶의 무한한 추구하고 도전이 있을 수 없다. 대학은 모든 이론과 이념, 모든 사물과 사상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유롭게 토론·연구·분석되는 삶의 산실로서 제 길을 걸어야 한다.

1. 大學의 自由

대학은 진리탐구와 인간형성의 양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 왔다. 대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참다운 진리탐구와 올바른 인간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유가 위축될 때 창조적 활력을 상실하고, 특정세계관이나 가치체계만을 관철하려는 이른바 사상의 강제수용소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예를 우리는 공산혁명과 나치즘, 파시즘을 비롯한 권위주의 독재체제하에서 대학의 존립양식을 통해 경험적 사실로 보아 왔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와 자율—자치—은 대학의 생명이다.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며, 공권력의 침해받지 않는 자유이다. 이 자유는 연구과제 선택과 연구방법 및 과정에서 공권력이나 그밖의 어떤 사회세력

으로부터도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의 자유도 포함한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궁극적 가치로 삼는 민주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학문연구가 관련의 간섭을 받는다면 학문의 침체와 문화발전의 후퇴를 가져올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민주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자치의 보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19세기 독일에서 발전한 학문의 자유(Akademische Freiheit)라는 전통적 이념은 교수나 학생이 반체제적 정치활동에 관계하는 자유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니었다. 즉, 학문의 자유란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통적인 전공분야의 연구나 교육을 행하

는 자유를 의미하였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외부적·정치적·행정적 권력의 개입에 대해서 대학의 자유를 옹호함은 물론 대학 자신의 힘으로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의 자유를 이용해서 사회의 공안 질서를 교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은 물론, 연구 및 교육의 장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해치며 임무를 방해함과 같은 활동이 학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대학은 특정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것에 반대하는 정치교육 기타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학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되는 것은 대학 본래의 임무로 하고 있는 학문연구와 교육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학은 스스로 학내의 질서를 설정하여 학문연구와 교육의 장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대학은 스스로 경찰력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생 스스로가 학내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학생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교육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대학 본래의 임무인 연구 및 교육을 저해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대학 자치의 취지를 배반하는 것이 되므로 엄중히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의 자유와 학생의 자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즉 학내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일반 학생은 공공적 정신과 도덕적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 있어서 질서의 유지는 대학 당국자뿐만 아니라 학생 각자의 공동의 책임이기도 하다.

대학에 있어서 교실 외의 일체의 학생생활과 학생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미국에는 Student Personal Service(SPS)라고 하는 것이 있다. 미국의 대학에 있어서 이 Student Personal Service 라는 운동은 비교적 세로우며 그 취급하는 범위는 학원질서의 유지, 학생단체의 여러 활동, 아르바이트, 직업지도, 주거, 건강 등의 경제적 및 복지적 시설, 기타 학생 개개인의 일신상 문제, 사상상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상담의 상대가 되어서 조언, 권고를 하며 또한 입학에 관한 것까지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직과 전문가와 테크닉이 구비되어 있다.

목적은 수단을 미화하지 않는다. 올바른 목적은 올바른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대학은 최고의 인간적 성숙을 약속해주는 도장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유용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출하는 전당이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지식의 행동화’ ‘행동의 지성화’가 함께 일어나 지성과 행동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도 대학은 “행동에 의한 현실 접근이 아니라, 인식에 의한 현실 접근”이라는 철학자 야스퍼스(K. Jaspers)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 있어서 연구와 강의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연구와 강의가 없는 데에 대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마치 교수들과 학생들이 없는 데에 대학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다. 실로 모든 진실의 인식, 학문은 자유를 빼앗겼을 때, 동시에 그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밀(J.S. Mill)이 말한 바와 같이 지식이 철저히 또한 빈번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토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도그마로 되어 산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진리는 그 자신이 자유로움으로써만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들을 계몽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은 가령 그 자신은 진리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무엇인가의 권력에 의해서 주장된다면 진리가 ‘도그마’로 화하는 것이다. 근대의 대학은 단지 낡은 지식의 전달의 장이 아니라 연구의 장으로 되어 있다. 대학의 연구실은 새로운 이론이 싹트고 미지의 세계를 밝혀내는 산실이다.

이와 같은 진리의 탐구를 위해서 어떠한 권위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또한 “지식이 철저히 또한 빈번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토의되기” 위해서 대학에 연구의 자유가 있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자유 그 자체가 또한 동시에 교수들에 대해서 하나의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것은 언제나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것, 자기의 학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야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그의 『대학의 이념』(Die Idee Universität)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교수의 자

유라는 것은 연구자가 그 연구와 교수에의 길을 자신의 비판에 의해서 걷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그것을 요구하는 연구자가 그 진정한 의미를 자각할 때에만 존립할 수 있다. 스루게네프는 “자유에는 의무라는 보증인이 필요하다. 의무가 없으면 단순한 방종으로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수의 자유는 제멋대로의 의견발표를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대학의 특징은 자유의 공기 속에서 진리탐구의 뜨거운 정열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이 심어지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권력 비판을 막으면 正邪 감각이 마비되고 만다. 따라서 대학문화는 창조적인 지성과 비판적 지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의 마지막 문화적 보루라 하겠다. 비판과 檢證 정신의 상실은 대학의 종말이나 마찬가지로 하겠다.

그러나 전체주의국가에 있어서 대학은 정치에 봉사하여야 하며 또한 대학을 국가에 직접 종속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학의 자유와 같은 것은 일고의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대학이 잘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오늘날 공산주의 제 국가에 있어서 학문을 정치의 수단 또는 장식으로 하는 태도는 학문적 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대학에 있어서 학문은 정치의 편에 봉사하는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학을 무조건 국법에 대한 저항기관, 즉 레지스탕스의 장으로 되게 해서도 안 된다. 대학의 레지스탕스는 학문을 통해서 이뤄져야지 직접 폭력적 실행행사에 의한 정치적 행동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치는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기본적인 생명이다. 그 당연의 귀결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장으로서의 대학은 정치적·행정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진실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학에 공통적인 원칙으로서 인류가 자유를 위한 투쟁에 의해서 획득한 귀중한 유산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는 “근본적인 회의야말로 지식의 아버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참된 지식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전자는

상대적이며, 후자는 절대적인 점에 있다. 만일 대학 교수가 자기의 주장을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것으로 설파한다면 그는 지식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설파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대학에 있어서 연구의 자유는 결코 절대주의적이 아니라 상대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지 아니라 학문적이어야 한다. 대학의 리버럴리즘(liberalism), 즉 학문, 사상의 자유가 대학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들은 자기와 상이한 학설에 대해서도 관용성이 있어야 한다. 연구의 자유는 이와 같이 비판적 상대적이며 또한 타에 대해서는 관용할 의무를 수반한다. 그리고 만일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대학은 스스로 연구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 된다. 대학은 이데올로기의 장으로 됨으로써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 여기에 대학의 자유가 그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까닭이 있다. 대학의 자유와 가치를 침범하는 것은 단지 그 밖에 있는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압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위협은 대학 자신의 내부에도 있다. 대학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다같이 대학의 안과 밖의 양쪽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아직도 배움의 미숙한 단계에 있는 대학시절에는 좀더 다양한 이론과 서적에 접해보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장·단점을 논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이론을 현실에 대치시켜 그것이 전부인 양 행동으로 옮겨 정의의 투사로 자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 하겠다. 더구나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는 소요사태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상아탑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인기정책을 쓰는 사이비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혼돈과 갈등을 명쾌하게 풀어주고 양심에 따라서 소신있게 처신하는 교수들의 대거 등장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영어의 Professor는 “자기가 믿는 것을 고

백한다.”는 라틴어의 ‘프로피테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원숙한 학문적 깊이와 인간적 신뢰감으로 학생들을 자신있게 지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대학다운 대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大學의 自律과 이상주의 및 낭만정신

대학은 자율인을 만드는 산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요, 학문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자율성은 고도로 존중되어야 한다. 대학이 폭력으로 타율을 자초하느냐 아니면 지성의 총화로 자율을 정착시키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인의 의지와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대학자치의 이념은 어떤 특정의 정치운동·사회운동 등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될과 동시에 또한 그것에 의해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즉, 대학은 대학 이외의 외부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에 있어서 지성의 임무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현재의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시정하고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이기도 하다.

대학은 지성의 용광로이다. 경직된 결론보다 토론과 과정을 중시하는 학구열이 튼튼하게 제 자리를 잡으면 여러 이념의 갈등이 한결 빠르게 지성의 용광로 속에서 해소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하겠다. 그러기에 올바른 대학은 철학적·사상적·이념적 토론이나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운위되어야 한다.

교수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작용’을 봉쇄, 배제하는 데 과감하고 용감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학생과 민족국가와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는 덕성과 지성을 겸비하여야 한다.

대학은 자유와 진리의 전당이며 인생의 황금기에 낭만을 구가하는 곳이요, 이성의 수련장이며 학문의 본산지이기도 하다.

찬란한 아침의 태양, 한포기의 꽃, 귀여운 아기의 웃음, 소녀의 맑은 눈동자, 모나리자의 영

원한 미소, 로댕의 조각들, 브람스의 음악,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이 지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에 작고한 영국의 제15대 계관시인 메이스펠드(John Edward Masefield)가 “지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대학이다.”라고 예찬한 바 있다. 왜냐하면 대학은 진리의 쉼터가 있는 곳이요, 젊은 생명들이 학문을 배우는 곳이요,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요, 편견이 없는 비판정신을 기르는 곳이요,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닦는 곳이요, 교수와 학생들이 성실한 지적 대화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은 진리의 공장이요, 인간의 도장이요, 사상의 실험실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상을 꿈꾸고 정신을 닦고, 대화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고, 성실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는 대학처럼 아름다운 것이 지상의 어디에 또 있겠는가. 대학은 확실히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젊은 나이에 자아발견, 자아확충, 자아형성을 위해 진리를 추구하고 학술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정신적 자아의 성숙을 위해서 고뇌를 겪는 곳이기도 하다.

‘생명의 푸른 풀밭’에서 이상의 꿈을 가꾸고, 때로는 사랑의 향기에 취하기도 하고, 학문의 맑은 샘을 찾고, 우정의 꽃밭을 거닐고, 생의 기쁨을 마음껏 찬미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때가 바로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때라고 하겠다. 대학을 보통, 최고의 학부라고도 하며, 학문의 전당 또는 진리탐구를 위한 전당, 지성의 고향, 진리탐구의 도장이라고도 말한다. 한마디로 자유와 진리의 추구는 대학의 영원한 이상이다. 따라서 학문적인 분위기가 걸여되어 있는 사이비 대학은 대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3. 大學의 使命

대학의 권위는 학문, 즉 진리탐구라는 고귀한 사명을 다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불려오기도 하였다. 하버드 대학 입구에는 ‘진리(veritas)’라고 새겨져 있다. 이 말은 대학의 본질을 잘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진리라는 말의 그리스 어원 자체가 ‘아레테이아’(비은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한 곳에도 가려진 데 없이 드러내 놓고 보아야 비로소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이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모든 진리를 낱알이 습득·계승하고, 그 토대 위에서 既成의 진리에 대하여 그 眞否를 가릴 수 있도록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 진리를 발견·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조된 새 진리를 다시 미래를 위하여 축적하는 곳이라 하겠다. 즉, 진리의 과거로부터의 계승, 이에 대한 비판, 이를 통한 새로운 진리의 창조, 미래를 위한 축적, 또 다시 계승, 비판, 창조, 축적의 무한케도를 달리는 곳이 곧 대학이라 하겠다. 또한 대학사회는 지상에 그 전당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바라보는 시야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중세기에 세워진 대학(university)의 어원이 보편성(universality)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이치가 맞는 말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대학은 세계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대학 내에서 다루는 학문의 대상, 곧 진리의 보편성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은 세계성과 보편성이 그 본질이다. 이와 같은 학문은 시공을 초월한 밝은 지혜로서 곧잘 風雲을 이겨낼 수 있다.

한편,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사회발전의 이론적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되며 교수들의 연구와 그 이론이 구체적으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유럽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어디를 막론하고 대학을 창설할 때의 本意는 학문의 연구와 함께 그 이론의 교수와 인격적 도야를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대학은 학문 또는 진리라는 그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한편, 사회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명확하게 밝혀줄 지적 통찰과 사회발전의 구체적인 전략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공급하고, 나아가서 교양과 인격을 갖춘 개인으로서

의 행복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서 견인차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길러 낼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보려거든 먼저 그 나라의 대학을 보라는 말이 있다. 대학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축도요, 체온계와도 같다. 대학은 스스로 시대의 아픔을 앞서 앓는다. 그리고 대학은 스스로 시대의 웃음을 앞서 꺾워낸다. 혹자는 ‘대학의 하늘’과 ‘사회적 하늘’에 장벽을 치는 상아탑이란 표현은 애당초 진부하다고 논하기도 한다. 사실 어떤 학문, 어떤 생각도 현실의 소재를 떠날 수는 없다. 대학은 다만 좁은 현실에서도 ‘넓은 현실’을 보아야 하며, 얕은 현실에서도 ‘깊은 현실’을 꿰뚫어볼 책무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혹자는 대학은 높은 의미에서 상아탑이 아니라 국가사회와 세계의 감시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의 대학은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의 장으로서만이 아니라 기성사회 안의 예리한 비판적 지성으로서 현실 참여라는 또다른 사명을 가진다고 한다. 즉, 대학은 국가사회와 세계의 나침반으로서 그 예리한 비판적 지성을 통한 실천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천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있어서 자유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가진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선 연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비합법적 또는 폭력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첫째로 학외의 세력을 대학 내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대학의 가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폭력적 실행행사에 해결을 구한다는 것은 학문의 근본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해서 비합법적 행동을 시인하는 것은 학원의 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4. 大學과 學問의 가치중립성

대학은 삶의 쉼터요 小宇宙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은 다양성·다원성·복합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어느 특정 정치이념이나 고정된 사고

의 틀 속에서는 대학이 본래의 사명인 앞의 무한한 추구와 도전이 있을 수 없다. 대학은 온갖 불법·비법·폭력이 통하는 아수라장으로부터 모든 이론과 이념, 모든 사물과 사상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토론·연구·분석되는 삶의 산실로 제길을 걸어야 한다.

대학은 민족과 인류의 건강을 진단하는 곳이어야 한다. 대학의 옳은 진단 혹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압력에서 초월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이 정치적 압력을 받아 권력의 시녀가 되면 개성이 없는 획일화된 비참한 사이비 대학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대학은 기성세계관이나 기성가치체계의 절대성만을 관철하려는 사상의 강제수용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 더구나 대학은 어느 하나의 기성가설이나 기성학설의 절대성만을 고집하기 위한 밀폐된 동굴일 수는 없다. 대학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혼자만이 사명의식이나 절대성·정당성 따위를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다. 대학을 이른바 자유와 개방의 광장이라 일컫는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이 누리는 ‘학문의 자유’라는 특권은 따지고 보면 대학이 지닌 새로운 진리창조의 그 소중한 활력이 기성의 낡은 세계관이나 화석화된 가치체계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낡은 과거를 회고·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골동품적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내일을 전망·구상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진취적·능동적·주체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성스러운 수련의 도장이라 하겠다.

대학은 마치 高地에서 전체의 산맥을 볼 수 있듯이 보편적인 시야를 갖고, 민족과 국가 내지는 세계의 대체와 방향을 측정하며, 이를 위정자 내지 국민 또는 세계시민에게 제시할 책임이 있다. 대학은 민족과 세계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대학은 역사와 민족과 인류의 소유이다. 정권의 소유일 수는 없다. 정권은 짧아도 대학은 길다. 정당적 선전이나 선동에 의해서 행동함이 없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

단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학문의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 학문적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임무이며, 그것을 배우는 것이 학생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이다. 대학은 어떠한 사회적 정세하에 있어서도 학문의 연구와 교육의 場으로서 인류와 국민에게 공헌하여야 하며 가령 전쟁과 동란의 와중에서도 이 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어떤 특정의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에 봉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교육적 정열을 정치적 정열에 의해서 대치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의 포기이다. 대학은 특수한 정치의식을 양성하는 장소는 아니다. 대학을 정치투쟁의 장소로서 이용하는 것은 대학 본래의 사명에 반하는 것이며, 연구 및 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에 필요한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이데올로기의 장이 되면 대학의 자유가 그 내부에서 붕괴하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의 자유는 연구와 강의의 자유이지 ‘프로파간다’와 정치활동상의 특권적인 자유는 아니다. 교수나 학생이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느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시민, 한 국민으로서의 자유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 내지는 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활동상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 대학은 국가속의 독립한 소국가도 아니며 (Die Universitäten Sind nicht Staaten im Staate) 대학인은 정치적 특권계급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도 국법의 틀 속에 있는 것이지 대학이 치외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치와 연구의 자유가 國體와 政體를 부정하여 직접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면 이는 정당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서독의 헌법에서 “학설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독일 연방공화국 헌법 제 5조 3항 참조)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법은 대학의 자유가 損壞되지 않도록 입법되고 운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에 있어서 학문은 어디까지나 막스 베버의 이른바 가치중립성(Wert Freiheit)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대학은 가치로부터의 자유 내지는 가치중립을 이념으로 하는 곳이지 가치판단

을 성급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옮겨서 강요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한의 탐구라고 하는 점에서 보아 독선에 불과하며, 특히 정치 등에 관계하는 경우에는 데모크라틱하지 못하다. 정치는 의회를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

원래 막스 베버가 Wert Freiheit, 즉 가치중립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된 것은 당시 '파쇼' 체제에 동원되는 학원이 정치권력에 좌우되거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벽이 곧 '정치적 중립'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학원의 정치적 중립은 학원이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보호 수단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주의국가에 있어서 대학은 정치에 봉사하여야 하며, 거기에서는 대학의 자유와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날의 소련과 동구권, 오늘의 북한에 대학이 정치권력의 시녀, 도구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Wert Freiheit의 의미는 학문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최대의 지적 정력의 집합체로서 권위있는 발언권을 가져야 함은 물론, 그들은 전문성과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치열한 지적 경쟁을 주저말아야 하며 학원 내에서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행적을 쌓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자유로이 정부나 사회에 대해 비판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들이 활발히 대외적인 발언을 하는 지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만큼 미숙한 학생들이 목적을 높여야 할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의 정당한 사회적 역할과 정신적 권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수의 현실적인 정치참여로서의 정계진출은 진정으로 학문연구를 하는 학자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매우 유능한 외교수완가이자 뛰어난 통찰력으로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키신저도 출신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 복귀를 교수단이 거부했다. 실용주의적인 미국 대학에서조차 현실참여를 한 사람은 더이상 교수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학문의 소산—지식—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선악이 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학자의 지식을 제공하는 일, 파는 일은 지식 그 자체의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이라는 도구'를 인간적·인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학자라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에 유리한 지식만 골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을 주어 지식제공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도 한다.

학문이라는 장터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학문의 誤用이라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지식을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학자는 비난받기도 하고, 찬양받기도 한다. 강자의 비위에 맞는 지식만 골라 비루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폭학아세의 아첨배요 亞流라 하여 비난받는다. 약자를 곤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지식을 제공하면 용감하고, 도덕적이라 하여 칭송받는다.

학자라고 한다면 부당한 사람들이 개과천선은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옳다고 하겠다. 요컨대 학문의 정치에의 맹목적 야합은 학문을 파괴하고 정치를 타락시킬 뿐이다. 참된 학문의 세계에는 유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학설에는 유행이 있으나 학문에는 유행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5. 맺는 말

대학은 어디까지나 문화활동의 계승·발전·비판의 場, 즉 문화활동의 지성적 측면의 증척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는 학자의 이른 속에 자기의 주장하는 정책 등에 다소의 불편과 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할 아량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는 더욱 건전하게 성숙되어 간다. 또한 반대로 학자는 정치가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치가의 행동 속에 자기의 연구의 중요한 재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함으로써 학문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갖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에서 발견되고, 얻어진 진리가 메로는 위정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칸트(Kant)의 말과 같이 자유를 존중하며 그 진리를 보배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의 진리는 어느 특정기간의 정치적 이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의 진리란 어느 정도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날 통치자의 비민주적 통치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모든 대학을 획일적으로 지배해 왔다. 특히, 지난 30년간 우리 대학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해 예측이 강요되었으며, 대학의 불구화가 초래되었다. 지금 우리 대학들은 이 지배와 예측으로부터 자유로워야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

대학은 한 사회 전체의 머리와 가슴이지 어느 개인, 어느 집단의 것일 수 없다. 한 시대를 통치하는 집단의 자의의 종속물 또는 도구로 된다면 대학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대학이 어느 한 가지 교조적 주장에 의해서 지배

되면 사망해 버리고 만다. 대학은 참(眞)과 곧음(正)이라는 기준을 준수하는 한,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 모든 주장, 모든 믿음을 다같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진리와 신은 모든 주장을 검토하는 가운데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정해놓은 틀 속에서 발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는 이렇듯 한 사회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불가침이어야 한다. 힘으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자기에게 예속시킨 통치자는 자기 잘못의 확대재생산의 순환 속에서 길을 잃고 자멸하였다.

슬기로운 사회나 국가는 대학을 아낀다. 대학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모든 배려를 다한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나무는 자유로운 사회에 있어 자유를 토양으로 하면서 싹이 트고 무성해지기 때문이다. 즉, 대학은 '자유'라는 토양 위에 싹트고 무성해지는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또한 슬기로운 사회나 국가는 대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학을 올바르게 이용한다.

요컨대 대학이 휴머니즘의 전당이 되고, 이성의 저수지가 되고, 진리가 군림하는 푸른 숲이 되고, 진보의 원동력이 될 때 그 높은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